

1차시. 변화의 시대, 미래학을 공부하라.

01. 변화의 시대, NEW 패러다임의 등장

▶ 연결성:

기술 발달로 인해 세상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네트워크화되어 국가 간 영향, 기업 간 영향, 개인 간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연결성이 커지면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 속도도 빨라져 그에 따른 정부, 기업, 개인들의 트렌드리딩력이 매우 중요해졌고 미래에는 과거보다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복잡성: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결국 세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복잡성이 크다는 것은 신경 써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진다는 의미다. 미래사회에는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지금처럼 한쪽만 바라보는 사고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어지고 미래역량으로서 세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 불확실성:

연결성과 복잡성이 커지면서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예측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변수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능력은 미래인재의 필수 역량이 될 것이다.

02. Possible, Probable, Preferable

▶ 가능한(Possible) 미래:

미래학자들이 연구하는 첫 번째 미래는 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미래다.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그려볼 수 있는 미래상이다. (고령화, 지구온난화, 세계화 등)

▶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Probable) 미래: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개별 주체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상이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100세 장수, 원자력발전 사고 등)

▶ 바람직한(Preferable) 미래:

가능한 미래와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모두 고려했을 때 실제 정부, 기업, 개인이 만들고 싶은 미래상을 말한다. 바람직한 미래를 그릴 때는 효율만을 따지거나 수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그려야 한다. (건강한 100세, 위험을 최소화한 에너지 발전 등)

03. 이제는 퓨처마킹이다.

▶ 벤치마킹: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자신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사례를 정하고, 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전략 또는 교훈을 찾아보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변화가 빠르지 않던 시대에는 벤치마킹이 효과를 발휘했으나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점점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 퓨처마킹:

최고의 것을 베끼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전체 상황을 통찰하며 미래에 통할 것들을 예측하고 상상해서 보다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먼저 창조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경영학자 톰 피터스)
적자생존이 아닌 속자생존의 시대에는 벤치마킹보다 퓨처마킹이 중요해지고 있다.